

【총괄 심의 의견】

- 대전이란 장소성을 부각시키면서, 대전의 정체성을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기획 주체들임에 분명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.
- 다만 그것이 문학과 예술이란 장르를 근간으로 한 것이냐, 과거의 가치를 발굴하여 미래 시민의 삶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냐, 그리고 한 지역에 머무름이 아닌 전국확장성이 있느냐에 있어서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.
- 이러한 기준에 가장 근접한 과제를 위원 전원의 합의로 선정하였다.

협업형예술창작생태계조성사업 추가공모 심의위원회

【심의위원 명단】

연번	성명(소속)
1	박현오(前 대전문화관장)
2	송기섭(충남대 교수)
5	김홍진(한남대 교수)